

# 광주 동신중·선운중 2학기때 시험 안본다

광주·전남 '자유학기제' 시범실시·학부모·교육계 반응

## 순천 이수·화순 동면·완도 청산중 등 5개교 지정 진로체험 확대 속 학력 저하·사교육 팽창 우려도

광주 동신중과 선운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돼 올 2학기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순천 이수중·화순 동면중·완도 청산중 등 3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6년 전체 중학교에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8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

르면 교육부는 오는 2016년부터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가운데 한 학기를 정해 학생들이 시범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토론·발표·탐방 중심의 수업을 하고, 진로탐색 및 예체능 활동의 과정과 결과

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교육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이날 광주·전남지역 5개 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37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연구학교는 자유학기제의 특징에 맞는 편성과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게 된다.

동신중은 자율적 체험활동과 토론·조사·실험·프로젝트 수업 등 협력학습 중심의 수업 방법과 평가 모형을 중점 연구한다.

선운중은 진로·인성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직업체험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문화·예술 체험활동 운영을 모색한다.

전남지역은 도시학교인 순천 이수중과 읍면단위의 화순 동면중, 도서벽지의 완도 청산중 등 3곳을 연구학교로 지정,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제는 전체 6학기 과정 가운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하나를 택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매년 3000만원씩 3년간 연구비가 지원된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와 사교육 조장 등을 우려했다.

광주지역 중학교 한 학부모는 "입시로 내신 부담이 크니까 평가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이 불안할 수 있다"며 "자칫 학교 공부에 소

홀하게 되면 학교 불신으로 이어져 미래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2학년 박모양은 "1학년때 집중이수제라면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더니 1년만에 없어졌다"며 "수업방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용태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창의적 진로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평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자칫 학교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교사 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지자체·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벚꽃터널 담자

원연한 봄날씨를 보인 28일 여주시 원래동 도로변에서 행인들이 활짝 핀 벚꽃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도심 속 '덩치 큰 미니학교' 대책없네

# 서석·수창·중앙초 올 신입생 고작 10명대

신입생 19명, 12명, 17명. 어느 시골학교가 아니라 전국 최대 규모와 100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광주 서석, 중앙, 수창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 수다.

한 때 학생 수 3000명을 넘었던 중앙초는 지금은 각 학년당 1학년씩 100명 남짓이다.

중앙초와 함께 '삼총사'로 불린 서석·수창초도 마찬가지다. 전교생이 116명인 수창초는 올해 1학년 입학생이 17명에 그쳤고, 2학년은 이보다 적은 14명, 3학년 22명, 4학년은 10명밖에 안 된다.

서석초는 전교생이 203명으로 그나마 많지만 올해 신입생은 고작 19명뿐이다. 서석초는 한 때 100학급이 넘어 학생 수가 40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초등학교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급기야 내년에는 신입생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인근에 주거지가 사라져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다닐 아

이들이 없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동구는 도심 공동화 해결 방안을 내놓고, 광주시교육청도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화현상을 도입해 다른 지역 아이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를 폐교하고 부지와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구상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잘 나가는' 공대 졸업생

자연대보다 월급 45만원 많고 취업률도 80% 상회

같은 이공계라도 공학계열 졸업자가 자연계열 졸업자보다 취업이 잘되고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창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학계열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 81.4%, 평균 월급이 225만 3000원인 반면 자연계열 졸업자는 취업률 73.8%, 월 급여 179만4000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7년과 2010년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만8000여명의 전공별 취업현황을 조사했다.

전체 전공 중에서 공학계열은 의약계열(취업률 88.4%·급여 242만6000원)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되고 평균 월급도 높았다.

학과별로는 기계와 전기전자가 취업률이 각각 83.9%와 83.6%에 급여는 254만3000원과 235만원으로 좋았다. 전산공학과 화학공학은 취업률 85.5%와 84.2%에 월평균 임금은

214만2000원, 212만7000원이었다.

자연계열 전공은 생물학(취업률 66.4%, 임금 164만6000원), 화학(64.5%, 185만4000원)계열 등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공학계열보다 취업률과 임금이 떨어졌다.

정규직 취업률도 공학계열의 기계와 전기전자는 70%를 웃돌았지만 수하·물리·화학·생물 등 자연계열 전공은 40~50%대에 그쳤다.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괜찮은 일자리' 취업률은 건축을 제외한 모든 공학계열 전공이 4년제 대학 전체 평균(32.5%)을 넘었지만 자연계열은 화학(38.0%)을 제외하고는 4년제 대학 평균을 넘는 전공이 없었다.

/연합뉴스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4분 / 해질 18시 51분 / 달돋이 21시 03분 / 달지기 07시 13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2/14C
목포	맑음	2/11C
여수	맑음	7/14C
나주	맑음	1/14C
완도	맑음	4/15C
구례	맑음	3/15C
강진	맑음	3/14C
해남	맑음	2/13C
장흥	맑음	3/13C
순천	맑음	3/14C
영광	맑음	1/10C
진도	맑음	4/11C
전주	맑음	1/13C
군산	맑음	-1/10C
남원	맑음	0/14C
혁신도	맑음	5/7C

바다	중랑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김기뚜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1.5~2.5m	관심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1.5~2.5m	관심	보통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목포 03:24	08:3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여수 10:21	04:0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토)	31(일)	4/1(월)	2(화)	3(수)	4(목)
날씨						
최저/최고	1/16	5/15	4/15	4/17	3/18	6/17

## 주말 상큼한 도심 공원

### 운천호수 '음악분수' 내일 가동

광주시 서구가 30일부터 운천호수 '음악분수'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운천호수와 음악분수는 1일 2회, 낮 12시 30분과 밤 8시에 30분간 운영된다.

서구는 공영일과 주말에는 오후 3시30분 분수를 1차레 더 가동하기로 했다.

서구관계자는 "음악분수 가동 시점이 벚꽃 개화시기와 맞물린 만큼, 주민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 내년 대입 전형 유형 수시·정시 포함 총 2901개

올해 시행되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의 전형 유형수가 290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이 28일 밝혔다.

이투스청솔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공하는 2014학년도 대입전형계획 홈페이지에 실린 215개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수는 1천863개, 정시모집 전형수는 1038개로 총 2901개였다.

이 같은 전형수는 2013학년도 대입에서 전형 유형수가 3186개에 달한데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전체 대학의 전형계획을 분석한 것은 아니어서 단 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학별로는 인하대가 28개(수시 17개, 정시 11개), 대전대가 26개(수시 15개, 정시 11개), 경주대가 24개(수시 16개, 정시 8개) 등으로 많았다. 전형유형수가 20개 이상인 대학은 모두 22개였다고 이투스청솔은 밝혔다.

/연합뉴스

### 아이엘리시아

특색성 서비스등록 제41-0187289호

###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평탄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중학생이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정서코칭 정서지각능력이 향상되고 관계능력이 증가되어 자존감과 행복감이 높아지는 효과

학교폭력 청소년의 심리, 학교폭력 및 학교 내 집단따돌림 현상, 관련법제 등을 이해

-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은 kcfce@hanmail.net 접수 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 교육비: 25만원 / (사전 접수: 3월 30일까지 입금 한하여 22만원)
- 입학금: 25만원 >>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검정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 특 전: 포레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됨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 후원 | fcbci 광주동방방송

www.kwangshin.ac.kr | www.ayce.co.kr | www.fcbci.net

---

##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함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